

교육은 백년대계 강화군, 교육경비 지원 효과 '톡톡'

강화고, 교육경비지원 강화고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 / 지역인재 육성 '풍요로운 강화100년 기틀' 마련



자치교육과_강화고 인조잔디 운동장 준공

유천호 군수는 23일 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완공된 강화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강화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군 교육경비 보조금 4억6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9억2천4백만 원이 투입됐다.

군은 코로나19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5억여 원을 증액해 31억여 원을 지원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창의 체험활동 ▲진로·진학프로그램 ▲명문고교 육성 등 학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사용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기반 구축 ▲행복배움학교 지정 고등학교 지원 ▲학생기자단 육성 등을 발굴해 지원 분야를 다양화 했다. 인조잔디 운동장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방과 후와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생각으로 강화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외포권역(외포항·황청항) 어촌뉴딜사업 300사업 탄력

한국농어촌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 외포권역 116억 원 투입, 어촌어항 활력재고

외포항·황청항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새우젓 산지

군은 2022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외포권역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업무 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마을 조성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본·실시설계 수립, 시설물 공사 감독 및 사업관리를 맡고, 지역협의체 운영,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담당하고 군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해 외포권역의 어항기반시설 정비와 관광자원의 재생 및 연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외포항에는 물양장 확장, 어구어망창구 신축, 선양기 및 선양장이 신설되며, 황청항에는 선착장 및 부잔교를 정비하고 어구어망창고가 신설된다. 외포권역 경관정비 및 특화재생공간으로는 ▲외포항 포토존 정비, 바다쉼터 조성 ▲수산물직판장 새우젓 상징 특화 ▲삼별초 역사광장 정비 ▲갈매기 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어항과 어항을 연결하는 권역사업으로 외포항에서 수산물직판장·삼별항몽유허비·망양돈대·삼암돈대를 거쳐 황청항까지 '내가 새우路'를 조성해 단절구간 없이 연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손을 맞잡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어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 최벽하 기자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강화투데이(주) 임직원 일동

2022年度(壬寅年)

신년사



유 천 호
강화군수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군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오며, 희망의 순간만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의 순간은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군민들께서는 ‘지역’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열정으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저 또한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 군민께 힘을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 노력들이 더해져 군민의 삶과 문화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초대형 문화복합시설인 ‘강화군 행복센터’를 건립했고, 도심 곳곳에 ‘주차장’과 ‘도시공원’을 조성했으며, 선원면에 ‘지혜의 숲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과 국궁장을 통해 군민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고, ‘단군콜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살피드리기 위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도·농 균형발전 원칙으로 군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핵심가치인 농·축·어업 예산이 2배이상 확대됐고, 교동면에 3만3천평 규모의 화개정원을 조성하는 등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유치했습니다. 군민의 최대 숙원이었던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아울러 서도지역을 오가는 해상교통 운항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혁신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땀 흘린 공직자들과 방역마스크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선제적인 지원책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전국 최고수준의 백신접종률을 보여주신 선진군민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 군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대단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와의 공존 또는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이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되고,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2022년 강화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높은 백신접종률을 유지하고,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과 마스크 지원, 안심콜 서비스 등 방역체계는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밖에 있는 사각지대 보호에 집중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선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해 노인성질환의 적극적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 장비 현대화,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 건립 등 의료분야 보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일상방역을 돕고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설립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는 ‘청년들’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전방위로 조력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공원과 주차장, 행복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들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온수리 도시재생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군민께 더 좋은 일들과 더 큰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경로당에 비대면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더욱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올해 80억원까지 조성·운용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가정 내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께서는 의지할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주거생활을 돕겠습니다. 위기가정은 적극 발굴하고 지원은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등 주민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등의 생활SOC는 물론 스마트화된 도시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해 우리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마을 곳곳 분리배출시설과 재활용 전용봉투를 확대 보급하는 등 그 기조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길거리 어딜 가도 ‘깨끗한 강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화’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화군 최대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있는 화개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화 함상공원과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유치해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의 관광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외된 북부지역에 폐교를 활용한 천문체험시설과 산이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부지역에도 남단 해안길 조성길상면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천오백만 관광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핵심가치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농·축·어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농·축·어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논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외포항과 황청포구에 신규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농산물 축제를 재개하고 활성화해 그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안전’과 ‘건강’을 강조한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적응과 판로 개척에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농·축·어업인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신기술 개발과 스마트기술 융·복합 등 미래 농·축·어업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내일’을 위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역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위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명심하고,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인구활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이 어려웠던 ‘서도연도교 사업’은 사업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군민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광역교통망 확충에는 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사업 착수에 이어, 영종~강화 교량 건설, 마송~강화 국도 확장 등 다른 광역교통망들도 조속히 확정·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더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해안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내부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새해는 호랑이의 해입니다. 올해는, 민족 특유의 강인함과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호시마주(虎視馬走)’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예리하게 통찰하고,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며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우리 군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군민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군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군민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새날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년 새해 아침

강화군수 유 천 호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

강화군의회의장 새해인사



신득상
강화군의회의장

존경하는 7만여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화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출향인 여러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한 해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여러분께서 강인한 군민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슬기롭게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화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힘차게 도약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2년, 우리 제8대 강화군의회의원 모두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강화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고, 강화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항상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우리 군이 전국최고의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록 역사적인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회는 성장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일 때에만 의미가 있고, 그 지속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더라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새해를 꿈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모두가 다함께 잘 살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다 많은 군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한분 한분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 시대의 주역됨을 자부하면서, 희망찬 역사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혼자가면 단순한 길이겠지만, 함께가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밝아오는 임인년에는 새롭게 펼쳐지는 변화와 혁신, 화합과 도약의 길을 군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군민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강화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2022년 새해 새아침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연초에 계획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새해인사



유선식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강화교육은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교문을 열었고 배움을 이어가는 노력을 조심스럽게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면·비대면으로 허락된 시간, 공간에서 학습과 돌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강화교육"을 비전으로 2022년의 표어를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라 정하고

첫째, 학생이 꿈을 실현하는 '혁신미래교육'을
둘째, 교육공동체에게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셋째, 교육주체의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을
넷째, 소외 학생 없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따뜻함이 흐르는 현장중심의 학교 지원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의 작동 원리는 본(本)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포함한 직원 모두가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원행정의 온기가 우리 강화도의 각 학교, 교육공동체에게 퍼져나가고 학생들에게 흘러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새해인사



배준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강화 군민 여러분, 강화투데이 애독자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힘차고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우리 강화군에 널리 퍼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도 코로나-19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아직도 우리 일상은 코로나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금도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화투데이는 7만 강화 군민들을 위해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두 발 벗고 뛰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해였지만,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많은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화 군민 여러분그리고 강화투데이 애독자와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강화군에는 어려운 가운데도 △강화~계양(서울)고속도로 설계 진행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준공 △강화지구 송수관로 연결 △어촌 뉴딜300사업 후포항 준공 및 2022년도 사업에 외포항 선정 △강화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등 희소식이 많았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강화의 여러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여러분 모두 안심하고 생업과 학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화 군민 여러분, 강화투데이 애독자와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밝은 얼굴로 웃으며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새해인사



윤재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강화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지금이야말로 열정적이고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인년 흑호의 해를 맞아 강화군민 가족 여러분 모두가 기운 넘치는 발걸음으로 한해를 시작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해마다 같은 해가 떠오르지만 2022년 새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해가 우리 강화군민의 염원을 실현하게 해주는 빛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바이러스와의 오랜 전쟁은 건강과 안전 불안을 가져왔고 얼어붙은 경기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은 방역대책으로 인한 관광 인구 감소와 폭염, 가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염원을 담아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강화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강화군민들께서 선출해주신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면서 강화군민들의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군은 2022년에 한 걸음 더 성장할 것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기필코 봄이 올 것입니다. 당면한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며 한걸음 더 성장하여 "살맛나는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부지런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강화 가족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수천석(滴水穿石) -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천천히, 그러나 쉽없이 전진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새해에도 강화군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체육회 회장 새해인사



권영택
강화군체육회 회장

강화군체육회 회장 권영택입니다.
먼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강화군민과 체육인 모두에게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일상을 묶어 버리고 체육행사 또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무심히 두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2022년 새해는 기호지세(騎虎之勢)로 심기일전하여 코로나는 물론 소중한 일상이 원상회복되고 힘차게 부흥하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화군체육회도 새해에는 체육인들을 위한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사단법인 출범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체육인들의 스포츠권을 확립하고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및 종목회장배 체육대회, 13개읍면 체육대회를 대군민 화합행사로 치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 강화군체육회 100주년을 대비한 강화체육 100년사 발간과 기념축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체육강군의 위상을 한껏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장 새해인사



장기천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기대와 희망의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년여를 끌어온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군 노인회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제적 방역 활동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신 강화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노인회에서는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일정을 조정하고 절제와 기다림의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고 내실을 다져 나가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노인복지관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신규로 확충하고, 노후시설의 리모 델링과 다목적 이용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경로당 8개소의 이전, 신축은 물론 노인회 50년사를 발간하는 등 강화군과 손잡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활성화 종합 계획」을 마련 하기 위하여 강화군과 노인회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이끌어갈 내고장 강화의 주축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어른다운 우리가 됩시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온 「내고장 강화」를 위하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장 새해인사



임인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장 임인관입니다.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임인년의 임(任)자는 검은색을 띠는 수(水)의 기운이며 인(寅)자는 목(木)의 기운이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다른 한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해이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각자가 이루어야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위해 달리기 위해서는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야할 커다란 꿈과 오늘 하루 성취해야할 소소한 꿈을 정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준비되어있는 사람, 항상 무언가를 찾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더 자주 온다고 합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년 임인년은 코로나와 함께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맞서서 코로나 위기를 딛고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올 한 해 희망하시는 모든일들이 값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실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인천강화군새마을회 회장 새해인사



조인술

인천강화군새마을회 회장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1년이었지만 저희 강화군새마을지도자들은 어려운 고난속에도 봉사에 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도자님들의 아낌없는 봉사활동으로 여름김치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등으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드렸고, 집고쳐주기, 연탄나누기 등 봉사활동으로 추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강화군새마을회의 단결된 협동심을 더욱 배양하여 올해에는 기필코 인천시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전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강화군새마을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처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저희 새마을회가 새로운 시대적 정신인 '나눔·봉사·배려'를 실천하며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따스한 격려와 보살핌으로 저희 강화군새마을회에 깊은 애정 보여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새마을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장 새해인사



최금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장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를 겪었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실현도 인고의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그래왔듯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민족의 지혜를 발휘하였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모범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그리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구로, 국내는 물론 해외 121개 국가에서 16,100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는 지역의 평화통일을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활동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구축과 지속적인 평화실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평화공공외교 역량을 결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소통의길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나눠온 마음이 새해엔 두 배의 행복으로 커지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임인년(任寅年) 새해, 골목골목 가게들이 네온불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강화군지회 회장 새해인사



배충원

한국자유총연맹강화군지회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자유총연맹강화군지회 회장 배충원입니다.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2년여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에 대한 공존과 배려가 없다면 개인의 일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기제인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고, 갈등과 반목, 불신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과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등 회원이 참여한 코로나 19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뜻하는 국민복을 자충이 행하는 모든 활동의 최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포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협조와 세계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입니다. 이에 강화군지회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발적 참여와 봉사를 통해 발전하는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아래 자유와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壬寅年(검은호랑이)은 풍요와 성장의 기운이 넘치는 해입니다. 군민모두가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기세로 코로나를 이겨내어 이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여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새해인사



송미영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안녕하세요~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송미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2021년 신축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화군민 모두가 서로를 위한 배려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어려운 이웃 및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나눔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 서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은 강화군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약하며,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강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새해인사



이 한 훈

강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존경하는 농업인과 강화군민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검은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가정
에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모든 지역민과 농업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이 고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화농협은 지난해 본점 부지에 하나로마트 신축에 이어 영농자재 센터와 주유소를 신설하여 종합시설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농협 중 몇 안되는 종합시설 건립 사업으로 신용사업장과 경제사업장을 한 자리에 모아 각 사업 간의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 고객의 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강화농협은 건립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 군민 여러분과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화농협은 지금껏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농촌, 농협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군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군민 눈높이의 공공서비스 제공' 친절교육

민원만족도 대폭 향상



민원지적과_친절교육

강화군이 20일과 21일 2일에 걸쳐 군청 진달래홀에서 군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자세와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김향미 강사(더 행복한 파트너스 대표강사)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문화'라는 주제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강의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심리를 이해하고, 민원응대과정에서 감정을 헤아리는 언어적·비언어적 민원 응대기법 등을 활용해 근무 중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재현하며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에 대응해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응대요령, 악성민원 대처 방법 등 일선 업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돼 공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은 친절하고 민원 대응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기회로 친절도와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서강화농협 조합장 새해인사



황 의 환

서강화농협 조합장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화농협 조합장 황의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이 지나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도 변함없이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바라며, 희망차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악재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군민과 조합원 여러분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칫 우리 강화군과 서강화농협의 발전과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될까 우려와 염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해왔고, 인내하고 노력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 강화군과 군민모두는 이번에도 잘 극복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서강화농협의 조합장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서강화농협과 강화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주시요

군민여러분들과 조합원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인내와 열정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021년 한해동안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에도 우리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군민들과 조합원 모두가 기분 좋은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강화군민들과 소통하며 조합원들의 사랑에 더 많이 보답하는 자랑스런 서강화농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새해인사



고 석 현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021년에는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던 한 해였으나, 변화된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작하는 202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더욱 빛나고, 절망 속에 희망이 있듯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는 모든 분들이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힘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 시기가 마치 머물러 있는듯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속에 우리는 한배를 탔습니다. 모두의 힘이 하나가 될 때 그 위력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강화군, 밥맛이 으뜸인 강화섬쌀의 '새로운 벼 품종' 이름 공모

지역 특화 고품질·고부가가치 벼 품종 개발



강화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품질의 차별화된 강화섬쌀의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하고 이름을 공모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7일까지로 강화군 홈페이지(<https://www.ganghwa.go.kr>)에 군민제안을 하거나,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상담소에 방문해 공모하면 된다.

시상금으로는 최우수(명) 50만 원, 우수(1명) 20만 원, 장려(3명) 10만 원에 해당하는 강화섬쌀 교환권이 지급된다. 최우수작은 신품종으로 상품 등록(출원) 후 강화섬쌀 대표 브랜드 육성에 활용된다. 지역 이미지를 담은 품종명 등록으로 강화섬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봄에는 강화남부·북부지역에 8,000㎡ 규모로 시험포를 마련하고, 조생종 12 계통, 중만생종 7 계통을 재배해 생육과정, 병해충 저항성 등을 평가했다. 수확 후에는 군민, 농협,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미 평가를 통해 밥맛이 좋은 우수 계통(품종)을 최종 선발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품질의 차별화된 강화섬쌀의 새 품종을 보급해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 가겠다”며 “향후 새로운 품종에 대한 이름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농업기술센터_강화섬쌀 실증포

강화의 새로운 벼 품종명 공모

강화군을 쉽게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강화군을 대표하는 벼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 공모자격** 참가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기간** 2021. 12. 20. 09:00 - 2022. 1. 7. 18:00
- 제출방법**
 1. 강화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군민제안→벼품종 이름공모]에서 참여 또는
 2.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및 상담소에 비치된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언젠, 전화 및 우편,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 불가
- 시 상 금**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1명) 20만원, 장려(3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강화섬쌀 교환권)
- 활용계획** 당선작(신품종) 명칭으로 벼 '신품종 등록(출원)', 신품종(당선작) 확대보급을 통한 '강화섬쌀 대표 브랜드 육성' 등

유의사항(사용불가명칭)

- ✓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명칭 예) 항암, 항균, 고단백 등
- ✓ 형질 또는 가치의 직간접 표시 예) 상, 금(호), 특급, 일류, 영품, 우수, 토종, 진미 등
- ✓ 환경관련 명칭 예) 청정, 무공해, 유기농, 무농약 등
- ✓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현저한 지리적 표시 예) 대한민국, 서울, 경기, 인천, 한강, 한라산 등
- ✓ 그 외 국가, 인종, 단체, 종교를 모욕할 우려가 있는 명칭

* 기존의 벼 이름 예시 주정, 삼광, 대안, 윤광, 정도원, 길보, 미동, 호원, 알그이, 황금누리, 참도원, 하이미어 등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032)930-4150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교육개요

구분	기간	시간	장소
군단위 교육	2022. 1. 17.(월) - 1. 21.(금)	오전: 09:30-12:00 오후: 14:00-16:30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교육내용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 소독작업 전문기술 등 10개 과정 (10개 과정→1일 2개 과정씩 추진)

모집내용

모집대상	모집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강화군 관내 농업인	2021. 12. 20.(월) - 선착순 종료 시까지	과목별 99명 이내 (선착순)	032)930-4130 전화접수

교육일정

교육일자	1. 17.(월)	1. 18.(화)	1. 19.(수)	1. 20.(목)	1. 21.(금)
오전 09:30-12:00	고추	고구마	포도	인삼	벼 고품질 육성단지
오후 14:00-16:30	고추	고구마	발효식품	토마토	오이

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32)930-4130

인천시장 박남춘,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2022년 비전 제시

- 28일 올해 마지막 실·국장회의, 2021년 업무 전반 점검·평가 -
 - 올해, 인천형 뉴딜 통해 인천의 산업과 경제고도화 이룬 한해로 평가 -
 - 내년에도 지속적인 소통 통해 시민들의 염원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 -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1년 마지막 실·국장회의에서 실국별 10대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 시정 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나 공직자도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면서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산업과 경제고도화를 이룬 한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수소산업클러스터 등 바이오·수소 산업과 항공정비산업(MRO)·미래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 공모선정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한 KTX와 제3연륙교 착공,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협약, 백령공항 예타 대상 선정 등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던 해였다”면서, “그 밖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제도화, 상수도 ISO22000 획득, 본격적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등 지속가능도시로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 해 민선 7기가 이룬 결실들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염원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도 인천시 시정 비전은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임을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로 ▲인천시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 전략 수립,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 문화재생전략 수립, ▲수도권매립지 주변을 환경특구로 변화시키는 방안 수립 등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신종 감염병 유입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여건에 처해있는 만큼 인천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공모중인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을 인천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김포한강신도시 금빛수로’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금빛수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관 명소로 우뚝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한민국 최초의 캐널시티(Canal City) 김포한강신도시’에 조성한 ‘금빛수로’가 2021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후쿠오카본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건축공간연구원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와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작품을 접수, 각국의 예비심사를 거쳐 주최기관 및 각국 심사위원의 온라인 합동심사를 통해 최종 본상(Asian Townscape Award)을 선정하게 된다.

김포시는 한강물을 이용해 농업용 수로로서 대동맥 역할을 해온 물길을 2003년 한강신도시에 편입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Canal City)를 완성했다.

이 수로도시를 관통하는 ‘금빛수로’는 총연장 2.68km의 인공수로로 라베니체와 수변공원, 리버워크와 어우러져 김포시민 모두가 찾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수변공간(실개천 포함 11.7km)으로 재탄생 됐다.

특히, 라베니체(La-Veniche)는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모던한 스타일의 상가 건축물과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이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됐다. 금빛수로에는 수상레저시설(Moon Boat)과 음악분수, 피크닉 광장,

쇼핑몰, 산책로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거리공연과 전시회, 플리마켓, 전시회,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통해 금빛수로가 어우러진 김포한강신도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김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관광명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Photo NEWS

현/장/출/동



염하수로 항행



고촌 근린공원 현장행정



조류생태공원 쿨링미스트시스템 현장 방문



슬터다목적체육관 개관식



김포시 나진육교 경관조명 설치

강화군, 원도심 인증샷 이벤트 '강화 원도심 사진여행' 운영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로도 선정

강화군이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인증샷 이벤트 '강화 원도심 사진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 원도심'은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한 강화산성과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성공회 강화성당, 조양방직, 미래체험관, 소창체험관 등으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다. 여행객들은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며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강화 원도심 사진여행'은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스탬프투어로 강화 원도심 내 주요관광지 사진 인증투어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원도심 내 지정장소 4개소, 자유장소 1개소, 소상공인 가게(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한 5,000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강화군 한옥관광안내소' 카카오톡 채널로 전송하면 된다. 완주확인이 되면 한옥관광안내소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강화군을 방문해 강화의 역사·문화·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

강화군, '2021년도 자랑스런 강화인상' 선정

애향봉사부문 강화66동우회, 지역경제부문 고영철 씨, 교육연구부문 강화군쌀작목연합회 수상 영예

강화군이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의 위상을 대내외로 드높은 군민에게 수여하는 '2021년도 자랑스런 강화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애향봉사부문에 강화66동우(상조)회, ▲지역경제부문에 고영철(불은면, 53년생), ▲교육연구 부문에 강화군쌀작목연합회(단체)가 '2021년도 자랑스런 강화인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애향봉사부문의 강화66동우(상조)회는 강화군 1966년생 친우 모임으로 결성돼 지난 20여 년간 100여 명의 회원이 불우이웃돕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와 깨끗한 강화를 만들기 위한 청소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경제부문의 고영철 씨는 40여 년 간 한우 산업에 종사하며, '강화섬약쭉한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조합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교육연구부문의 강화군쌀작목연합회는 1998년 4월 설립 이래 끊임없는 연구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각종 영농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쌀의 고급화, 명품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전국 최고 품질의 강화섬쌀 생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힘쓴 군민·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평화전망대 望郷祭(망향제)

고수진



엄마,
저 강 건너가 아버지 고향이잖아
난 일흔이 다 되어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모르네

2021 辛丑年신축년 11월 17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는 강화군 실향민을 위한 望郷祭망향제가 열렸습니다. 풍성한 粢盛자성 대신에 하얀 국화꽃 두 바구니가 양쪽으로 놓였습니다. 조촐하게 소락했습니다만 쓸쓸했습니다. 창밖으로 조강이 흐르고 북녘의 산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조강은 썰물 때인지, 강물이 많이 빠져나가 강바닥을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지적의 거리입니다. '엄마'하고 외쳐 부르면 금방 어머니께서 놀라 행주치마에 손을 문대기며 맞을 듯했습니다.

2021 신축년도 저물어 갑니다. '강화 투데이'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해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연말이 닥치면서 후회되는 일 없습니까? 未練미련으로 남는 일 없습니까? 『논어』의 문구 중에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하고자 하면 즉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차근차근 계획하고 검토해야 만이 자신이 계획했던 소기의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는 “克己復禮극기복례”의 일입니다. “克己극기”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또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억지로 참고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몸소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復禮복례” 인간다운 사회의 질서 속으로 자신이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원대한 포부도 좋지만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작은 일을 성취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성을 쌓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終始중시'를 중요시 합니다. 시작과 끝이 아닌, 즉 '마침이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대중가요의 노래처럼 '未

完成미완성'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숙제는 마무리 되지 않은 未裁미재로 남고, 마무리 되지 않은 일은 곧 未練미련(짜다 만 비단)을 남기는 법입니다.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비단을 짰더랍니다. 비단을 짜던 중 할머니는 화장실이 급해 베틀에서 내려와 볼일 보고 다시 베틀에 앉을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자신이 여태껏 짜온 비단이 형편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늘 꼼꼼하게 비단을 잘 짰다고 자신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급기야 할머니는 비단을 잘라버릴까 했지만 지금까지의 노고에 할머니는 그럴 수 없었더랍니다. 할머니는 다시금 베틀에 앉아 心機一轉심기일전 전보다 촘촘히 세심하게 비단을 짜기 시작했더랍니다. 이야기 속의 이 할머니 역시도 빨리 한 필 짜내고 다른 일이 머릿속을 헤집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연말에는 바로 省察성찰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새해의 다짐을 아름다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終始중시'의 의미일거라는 생각입니다. 시작은 새로운 跳躍도약이며, 마침은 收斂수렴이다 보면 '未裁미재'에 대한 未練미련의 과정은 결국 洗練세련미를 갖추는 풀무질인 것입니다.

“隔江隔海必歸來격강격해필귀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근원적인 '未裁미재'가 있습니다. 바로 70여 년을 해결하지 못한 남북의 평화통일입니다. 그로인하여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미련의 수심이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을 박해한 지 무려 70여 년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남과 북 '未裁미재'의 不祥불상에서 헤어날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우리네 순후한 인정이며,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능적 정서입니다. 눈앞에 보고도 갈 수 없는 失郷실향의 슬픔과 歸郷귀향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삶의 권리로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당장이라도 산이포구를 열어 예성강으로 나룻배를 띄워야 합니다. 평화는 絶倫절륜의 강을 건너 고향의 봄 뜨락에 있습니다. 강둑의 철책선은 평등하지도, 공정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終戰종전이면 원래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종전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인륜의 회복, 인정의 갈증을 풀어줘야 합니다. 실향민의 소원은? 희망은? 기원은? 70여 년 한결같습니다. 정들면 타향살이 고향이라 하지만 그들은 끝내 錦衣還郷금의환향을 지향합니다. 실향민들은 진보주의건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통일이건 중립이건 종전이건 다 헛소립니다.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 겨우내 두엄을 저내고 새봄이면 언덕배기 황토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그간의 봉양치 못한 부모님에게 따뜻한 진지한 술 올리는 것이 소원이요, 희망이요, 기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가혹한 반동인 것입니다.

새해 2022 壬寅年임인년에는 실향민들에게 기필코 평화의 귀향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한 사람 한사람 백성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실향민에게도 귀향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우리 대한민국 손에 손을 맞잡고 소원하며, 희망하며,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壬寅年임인년 새해 '강화 투데이' 독자 여러분의 축복을 仰望망망합니다. ▣ - 최백하 기자

민주평통, 『2021 강화 평화플랜 시민대화』 개최(12.22.)

'시민대화' 통해 지역 평화 과제와 체감활동 도출 / 강화군민이 직접 평화과제 논의하고 평화플랜 마련, 이후 평화체감활동까지
김창수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도 참석해 시민과 대화하고 지원 약속

2021 강화 평화플랜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신득상)는 '강화군민이 준비하는 2021 강화 평화플랜'을 주제로, 12. 22.(수) 오후 2시 강화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2021 강화 평화플랜 시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대화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우리고장 평화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위원회와 실무회의, 참가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강화 지역의 평화과제를 논의하여 '강화 평화플랜'을 마련하고, 이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 실천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회장 최금자)가 주관하는 이번 시민대회는 강화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이 참석하여, '강화 평화플랜' 마련을 위한 평화 의제와 강화군민이 실천할 수 있는 평화 행동과제에 대해 참가자 전체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대화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약속의 시간'에는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준비위원장), 민주평통 이정희 인천부위원장, 최금자 강화군협의회장 및 김창수 사무처장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이 논의하고 마련한 '강화 평화플랜'에 대해 어떻게 강화군, 시민사회, 민주평통 차원에서 지속적인 실천사업으로 이

어나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

최금자 회장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강화군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화의 잠재적인 평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군민들이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 활동까지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중심 도시로서 강화군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개회 인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했다.) ▣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강화군에 마스크 3만 매 기탁

코로나19로 고립된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 선사



복지정책과_농협중앙회 마스크 기탁

강화군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강영)에서 마스크 30,000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강영 본부장은 “이번 마스크 기탁으로 최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대응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온기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덕신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털모자로 온정 전달



강화읍은 지난 13일 덕신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털모자 60개를 관내 독거노인에게 전해 달라며 읍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순영 학년부장은 “학생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모자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우종 읍장은 “학생들의 마음이 대견하고 고맙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관내 홀몸 어르신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2022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출전 국가대표 1차 평가전’

강화군 배준서, 핀급 우승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

강화군(군수 유천호) 소속 태권도 실업팀의 배준서 선수가 지난 22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1차 평가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지었다.

지난달에 열린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김세윤(한체대)을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던 배준서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김세윤을 다시 만나 23점차(26대3)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이어 2차전에서는 박태준(한성고)과 33대33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서든데스 끝에 2점차(2대0)로 우승하며 세계대회 2연패에 도전하게 됐다.



배준서 선수

배준서 선수는 지난 2019년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챔피언으로 세계 태권도 최정상에 등극한 바 있다. 배준서는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하여 우승하고 싶고, 강화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그동안의 선수들과 감독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태권도 정신이 서려있는 호국의 고장으로서 강화군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장학회, 지역 우수 학생 140명에 장학금전달



자치교육과_장학금 전달

강화군은 지난 19일 강화군장학회(이사장 이상설) 주관으로 문예회관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 1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설 이사장, 유천호 군수,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유선식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내 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을 축하했다.

장학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인재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강화군장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총 1,765명의 학생들에게 13억2천6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 사업이 가능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2억 원을 별도로 강화군장학회에 출연해 중단 없는 장학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설 이사장은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장학생들이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2022년 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선발안내

선발인원 총 187명 (제1장학관 71명, 제2장학관 116명)
 ▶ 제1장학관은 남학생 배치, 제2장학관은 여학생 배치
 ▶ 제1장학관은 1인 1실, 제2장학관은 2인 1실로 운영
 ▶ 2022년도 입사 시 방역패스 적용

접수 기간 및 방법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구 분	접 수 기 간	비 고
재입사생	2021. 12. 15. ~ 12. 24. (10일간)	주말, 휴일 미접수
신규입사생	2022. 1. 5. ~ 1. 19. (15일간)	

▶ 방문접수: 본인 또는 학부모가 강화군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교육지원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09~18시)
 ▶ e메일접수: ghedu@korea.kr(접수 마지막 날 18:00시 도착분까지)

입사자격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만,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로 합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입사생의 부모 또는 모가 선발 공고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입사기간 입사일 ~ 2023년 1월 31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032)930-3328,332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2022년 장기도서관 세상을 보는 부모교육 새학기 초등 습관의 힘



"초등 매일 습관의 힘" 저자
이성종 작가님과 함께하는 부모교육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존감, 창의력이 높아지는 아이들,
우리 아이 초등생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초등 매일 습관의 힘"

1. 초등 시기 습관 만들기의 중요성
2. 일상 속 부모 습관 점검하기
3. 학교가 좋아지는 아이 습관 만들기
4. 자기주도학습의 기초 다지기

- 운영 일정 : 2022년 1월 6일(목) 10:00 ~ 12:00
- 운영 대상 : 예비초등학생 ~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
- 운영 방법 : 비대면 온라인 수업(ZOOM)
- 접수 안내 : 2021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접수**
- 문 의 : 031-5186-4681(장기도서관 어린이실)



2022년 고촌도서관 거울방학 독서교실 '지구가 너무도 사나운 날에는' 책과 함께 생각 나눔



<p>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할 바이러스</p> <p>신종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는 이유는 뭘까?</p>	<p>우주, 지구 너머 공간을 따주하는 코스모스</p> <p>우주의 상업화, 우주의 쓰레기 어떻게 해야 할까?</p>
<p>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p> <p>식량이 부족해질 미래에, 우리는 곤충을 먹고 살아야 할까?</p>	<p>데이터에 기반한, 우리 동네 미세먼지</p> <p>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해결의 최선택일까?</p>

강의 안내

- 일 시 2022. 1. 10.(월) ~ 1. 13.(목), 10:00-12:00
- 대 상 김포시 중학생 15명(2021 학년도 기준)
- 강 사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
- 운영방법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사상내역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장상 1명(우수 참여자)
★김포시립도서관장 수료증(3회 이상 참여자)
- 접수기간 2021년 12월 14일(화) ~ 마감 시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김포시립도서관 홈페이지>문화행사>강좌/교육
방문 및 전화 접수(☎ 031-5186-4846)

